

1/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아베의 올림픽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그리고 올림픽 연기*

윤석정



2019년 9월 3일 토마스 바흐 IOC 회장과 회담을 하는 아베 신조 총리

출처: <http://english.kyodonews.net>

윤석정(尹錫貞)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게이오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동 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주 연구 분야는 한일관계, 일본외교이며 「1990년대의 한일관계와 한일공동선언: 한일관계의 구조변동에 의한 탈냉전기 협력과 제도화 시도」(2019), 「전후 70년 담화와 한국: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덮어쓰기와 한국 배제」(2019),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변경과 일본의 정당정치: 7·1 각의결정 과정을 둘러싼 정당정치 동학」(2019, 공저) 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일본연구소 발전기금(위임기금-통보 2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1. 들어가며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당위론과는 다르게 스포츠와 정치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중에 올림픽은 가장 정치적인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되어 왔다.¹ 본 논문의 목적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의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 즉 아베의 올림픽을 부흥올림픽 이념과 헌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²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올림픽의 연기를 아베의 올림픽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겠다.³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대회 이념으로 3.11 동일본대진재로부터의 ‘부흥올림픽’(復興五輪)을 내걸었다. 이 같은 부흥 이념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1964년의 올림픽이 전후 부흥의 상징이 된 것처럼 일본은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3.11 동일본대진재로부터 부흥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⁴ 그러나 부흥올림픽 이념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3.11 피해지역의 부흥에 기여하지 못하며, 부흥 이념은 피해지역의 참상을 숨기려는 아베 정권의 상징 조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⁵

1 Jonathan Grix, "Sport Politics and the Olympic," *Political Studies Review* 11(1), 2013.

2 나치 독일에 의한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은 국가가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베를린 올림픽 운영 및 조직은 독일 정부, 올림픽 위원회가 아닌 나치 독일과 히틀러가 주도하였고, 나치 체제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프로파간다의 장이 되었다. 이로 인해 베를린 올림픽은 히틀러의 올림픽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베를린 올림픽을 논하는 연구로서 池井優, 「スポーツの政治的利用: ベルリンオリンピックを中心として」, 『法学研究』 65卷 2号, 1992.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경우 올림픽 준비와 운영 주체는 개최 도시인 도쿄도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이다. 그러나 실상은 아베와 총리 관저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아베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올림픽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아베의 정치적 활동과 의도를 총괄하는 표현으로 아베의 올림픽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3 2020년 도쿄 올림픽은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올림픽 사상 최대 33경기 339종목이 펼쳐지면서, 17일간의 세계적 스포츠 제전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올림픽의 정상 개최는 어려워졌고, 일본과 국제올림픽 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이하 IOC)는 올림픽을 1년 연기하여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 일정으로 치루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가운데 2021년 개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4 東京2020オリンピック大会競技公式ウェブサイト, 「大会ビジョン」, <https://tokyo2020.org/ja/games/games-vision/>(최종 검색일: 2020. 4. 30.).

5 2020년 3월 로이터는 아베 정권이 부흥올림픽을 주장하지만 성화 릴레이 코스만 보수하고 정말 심각한 지역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서 ‘수정액’ 같은 것으로 “이 동네의 역사가 모두 지워지고 있다”는

피해지역의 실상을 살펴보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사실 관계를 따져 보면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부흥올림픽 이념을 제시한 것은 다른 아닌 2011년부터 올림픽 유치전에 임한 도쿄도였다. 그리고 피해지역의 부흥이 도쿄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의 대회 이념으로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은 이미 도쿄도가 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부터 나오던 것이었다. 따라서 아베의 올림픽에서 부흥올림픽이 차지하는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베의 올림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헌법 개정 문제다. 2017년 5월 아베는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 단체 행사에서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이 선진국으로 도약했다고 강조하고,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⁶ 이렇게 아베는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기억하면서 2020년의 개헌 정국에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가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아베가 주도하는 개헌 정국에 2020년의 도쿄 올림픽이 어떻게 연루되는지 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는 다음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첫째, 아베에게 부흥올림픽이란 자신의 창조물이 아닌 올림픽에 개입하기 위한 매개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재해 부흥을 대회 이념으로 제시하여 논란을 일으킨 주체는 도쿄도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아베가 도쿄도가 주도하던 2020년 올림픽 유치전의 일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부흥올림픽을 매개로 올림픽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아베가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헌법 개정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과업을 완수하는 해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아베의 발상에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자신의 기억이 반영되어 있었다. 일본 사

평을 내렸다. 齋藤真理·竹中清, 「焦点: 「復興五輪」に戸惑う被害者たち聖火リレーに冷めた視線も」, 『ロイター』, <https://jp.reuters.com/article/fukushima-futaba-idJPKBN20R04E> (최종 검색일: 2020. 4. 30.).

6 『日本経済新聞』, 2017. 5. 3.

회에서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전후 부흥의 상징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아베에게 1964년 도쿄 올림픽이란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귀속의식, 즉 내셔널리즘을 실감하는 대회였다.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아베는 2020년의 올림픽 이후 고양될 내셔널리즘의 기운을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렇게 아베가 2020년을 개헌의 해로 삼으면서 중의원 가을 해산설, 자민당 총재 4선 연임설 등 도쿄 올림픽이 2020년의 일본 정국에 깊숙이 연루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아베의 올림픽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였다.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참가국들의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중지까지 거론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사회에 중일 전쟁의 확대를 개최권을 반납하였던 1940년 ‘환상의 도쿄 올림픽’(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을 떠올리게 하였다.⁷ 이렇게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기억의 추가 1964년의 빛나는 시대에서 1940년의 올림픽 중지 쪽으로 기울어지는 가운데, 아베와 IOC 간의 협의로 올림픽의 1년 연기가 합의되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팬데믹에 직면한 아베가 올림픽의 연기를 모색하는 데 자신의 정치 일정을 최우선시했다는 점을 밝힌다. 즉 아베는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지 불확실했지만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9월 내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올림픽의 1년 연기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2장에서는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주로 올림픽과 내셔널리즘, 올림픽과 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1964년 도쿄 올림픽이 전후 일본의 정치사회에 차지하는 의미를 살펴보고, 올림픽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공적 기억과 차별화되는 아베의 기억을 밝힌다. 4장에서는 부흥올림픽과 헌법 개정의 사례를 통해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분석한다. 그리고

7 1940년 도쿄 올림픽의 유치와 개최권 반납 과정을 다룬 연구로는 權學俊, 「戰時期における「幻の東京オリンピック」の祝祭性と政治性に関する考察」, 『日本学研究』 第28巻, 2009.

팬데믹으로 도쿄 올림픽의 정상 개최가 어려워진 가운데 아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면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을 정리하고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올림픽 연기라는 세 가지 주제와 아베라는 개인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일고찰하겠다.

2. 올림픽과 정치의 관계

1) 올림픽과 내셔널리즘

1894년 피에르 쿠베르탱이 올림픽의 부활을 주장한 이후 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한 국제 친선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해 왔다.⁸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 올림픽과 스포츠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와 행동 양식은 정치적 이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었고, 스포츠는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타자와의 경쟁을 내재한 스포츠 경기에서 국가 대항전의 승리는 국가의 승리로 인식된다. 이른바 ‘국위 선양’이라는 이름하에 국가 대표의 승리는 소속 국가의 민족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간주되었고, 국가 대항전의 성적에는 국가적 가치가 부여되었다.⁹

국가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다른 예로 국가적 통합과 내셔널리즘의 증진을 들 수 있다. 스포츠 대회의 의식과 절차는 이를 바라보는 개개의 구성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는 정치적 상징의 일종이다. 그리고 귀속성의 확인은 소속 집단과 타자를 구분하는 인식을 가져온다.¹⁰ 올림픽 헌장에 의하

8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즘(olympism)의 목적에 대해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며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オリンピック憲章」, <https://www.joc.or.jp/olympism/charter/pdf/olympiccharter2019.pdf>(최종 검색일: 2020. 3. 20.).

9 박호성, 「국제 스포츠 활동과 사회통합의 상관성, 가능성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42집 2호, 2002, 96쪽.

10 양순창, 「스포츠의 정치적 상징성과 상징조작 기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2003, 55~56쪽.

면, 올림픽 경기대회란 단체 종목 선수 간의 경쟁이다.¹¹ 그러나 실제 올림픽은 민족주의의 장이 되어 왔다. 개최국은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 개막식 준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다. 시상대에서 메달 수상자가 국기를 둘러쓰고 국가를 부르는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올림픽 무대에서는 민족적 표현이 힘을 발휘한다.¹²

2) 올림픽과 정부 개입

올림픽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올림픽에는 대규모의 재정적, 행정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불러오기 쉽다. 정부는 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 이벤트에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조직이며, 관련 인프라 시설을 계획,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정부의 재정과 행정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진다. 올림픽 현장에 의하면 올림픽 관련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가 사회의 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¹³ 그러나 올림픽을 개최, 운영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단체들은 올림픽에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은 스포츠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¹⁴

둘째, 정부에게 올림픽은 도시 개발의 기회가 된다. 올림픽이라는 메가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올림픽의 경우 경기장을 비롯하여 도로, 공항, 숙박 시설 등 다방면에 걸쳐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유치권을 획득하고 개최까지 약 5~6년이라는 단기

11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オリンピック憲章」.

12 정기용, 『스포츠 외교의 신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들』, 박영사, 2018, 266쪽.

13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オリンピック憲章」.

14 Kwon, Soy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lympic Games in East Asia: The Nexus between Politics and Sports,"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22(1), 2015, p. 141.

간에 인프라 건설을 마무리해야 한다. 따라서 올림픽은 신속하게 개최 도시와 지역을 재개조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된다.¹⁵

셋째, 올림픽은 정부의 외교 활동으로 포섭될 수 있다. 올림픽 개최는 도시 단위의 사업이지만 국제 사회에서 올림픽 유치경쟁을 하는 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경우 한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 수출 다변화 전략에 동원되었던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올림픽 유치전에 임했다.¹⁶

넷째, 올림픽은 국내 정치 과정 및 정부 평가에 영향을 준다.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면 국가적 사업으로 간주되면서 정치 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올림픽의 상징성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무엇보다 올림픽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는 현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면서 개최국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며, 성공적인 개최는 지도자와 지배 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¹⁷

3. 1964년 도쿄 올림픽의 정치성

1) 1964년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치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패전에서 부흥했다는 것을 알리는 대회였다. 10월 10일 개막식의 성화 릴레이는 부흥올림픽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의식이었다. 성화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인 사카이 요시노리(坂井義則)는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날에 태어난

15 올림픽의 도시 외장 개조 효과에 대해서는 Victor Cha, *Beyond the Final Score: The Politics of Sport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Chapter 5.

16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과정을 외교사적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 김명섭·양준석, 「서울올림픽 유치의 정치외교사: 1981년 서울은 어떻게 올림픽 개최권 획득에 성공했나?」, 『국제정치논총』 제54집 4호, 2014.

17 정기용, 『스포츠 외교의 신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밖의 이야기들』, 247쪽.

‘원폭의 아들’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인으로서의 발군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카이가 성화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다는 것은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부흥하여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¹⁸

일본인들에게 1964년 도쿄 올림픽의 개막식은 전전 일본과의 결별을 각인시키는 무대였다. 1964년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전전과는 다른 전후 일본의 탄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가 이시카와 다쓰조(石川達三)는 패전 직후 황폐했던 일본과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는 1964년의 일본이 “같은 민족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평했다.¹⁹

또한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국립 경기장, 근대적 호텔, 신칸센, 고속도로, 하네다 공항 확충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대회 개막 직전 완공된 신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시설이 되었다.²⁰ 도쿄를 비롯한 일본 지역의 많은 인프라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져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다.

일본인들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치단결하였고, 전후 부흥을 이룩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성화 릴레이 주자였던 사카이는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²¹

도쿄 올림픽이라기보다는 ‘일본 올림픽’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에 모두 뜨거워졌습니다. 올림픽 개최에 맞춰 착공한 신칸

18 五十嵐恵邦, 『敗戦の記憶: 身体・文化・物語1945~1970』, 中央公論新社, 2007, 257~260쪽.

19 김옥희, 「일본의 문학자들이 기록한 1964년 도쿄 올림픽」,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8권 1호, 2017, 160~161쪽.

20 Christian Tagsold, “The 1964 Tokyo Olympics as Political Games,” *The Asia-Pacific Journal* 23(3), 2009, p. 2.

21 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 「東京オリンピック聖火最終ランナー・坂井義則氏」, https://www.joc.or.jp/past_games/tokyo1964/tokyo40/20040422_tokyo01.html (최종 검색일: 2020. 4. 30.).

센, 고속도로 정비 등이 상징하는 사회 정비도 세계 일류 국가에 들어간 일본, 전후의 폐허에서 완전히 다시 일어난 일본을 구현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까지 국민들이 단결한 이벤트는 도쿄 올림픽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일본의 보수 정치는 올림픽을 통해 회복된 일본 국민들의 자신감을 경제 개발로 향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경제 중심주의를 주장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였다. 1960년 총리에 취임한 이케다는 ‘소득 배증계획’을 제시하여 경제 성장을 일본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이케다의 구상 속에 올림픽이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대해 작가 고다 마이(幸田真音)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

이케다 하야토는 일본 경제가 이제부터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기폭제로서 올림픽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서 경제 성장에 임하는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최고의 찬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후 부흥기에서 경제 성장기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올림픽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비취졌을 것입니다. 이케다는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전후 일본을 경제의 시대로 이끌려는 이케다에게 올림픽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메가스포츠 이벤트였던 것이다. 이렇게 일본 보수 정치의 경제 중심주의자들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거듭하며 1964년 올림픽 이후의 빛나는 시대라는 기억을 만들어 갔다.

한편 일본의 보수 정치가 경제를 우선하면서 자립이라는 이념의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기시 노부스케가 주장하는 헌법 개정은 그 대표적인 의

22 幸田真音, 「前回東京五輪を成功させた池田勇人の信念: 真のリーダーシップとは何か」, 『東京経済オンライン』, <https://toyokeizai.net/articles/-/123019>(최종 검색일: 2020. 4. 30.).

제였다. 이에 대해 기시는 다음과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²³

헌법개정문제는 자민당의 내부 사정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전-점령의 잔해를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 더욱 중요하며, 최근 몇 년간 안보재개정과 함께 일본 정치가 직면한 최대 과제다. 헌법의 개정은 단순히 전쟁 포기 조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진정으로 전후에서 탈각하여 일본인이 일본인으로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일본의 진정한 부흥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고 식량이 풍부해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자립이라고 할 수 없다.

기시의 주장은 일본의 보수 정치가 경제 개발에만 몰두하여 개헌이라는 국가 자립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중심주의 세력이 자민당의 주류, 이른바 보수 본류로서 전후 일본 정치를 주도해 나갔다. 이처럼 전후 일본정치에서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은 경제 중심주의 노선으로 전후 보수 정치의 방향이 결정된 전환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1964년 올림픽의 도쿄 유치가 결정되었을 당시 기시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의 최고 고문이었다. 1959년 5월 27일의 IOC 총회에서 도쿄 개최가 확정되자, 기시는 “국민들이 스포츠를 애호하고 스포츠맨십을 존중하는 태도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면서 대회 준비에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²⁴ 그러나 올림픽에 대한 그의 행보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당시 관방장관을 맡고 있던 아카기 무네노리(赤城宗徳)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기시의 총리 시절 비서관 와다 지카라(和田力)도 “기시는 안보에 몰두해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회고한다.²⁵ 미일안보개정을 최우선하던 기시에게 올림픽은 부차적인 것에

23 다음의 문헌에서 발췌하였다. 安井浩一郎·NHKスペシャル取材班, 『吉田茂と岸信介: 自民党・保守二大潮流の系譜』, 岩波書店, 2016, 144쪽.

24 『朝日新聞』, 1959. 5. 27.

25 塩田潮, 「祖父・岸信介に安倍首相は何を学んだのか: 祖父を反面教師にできるのか」, 『東京経済オン

지나지 않았다. 이케다와는 다르게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발상은 기시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고 약 2년 뒤인 1960년 6월 23일 미일안보개정의 혼란 속에 기시는 퇴진하였고, 개헌은 보수 정치의 주류 무대에서 잊혀진 의제가 되었다.

2) 1964년 도쿄 올림픽과 아베 신조

아베는 자신이 기시의 후계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인물이다. 헌법 개정을 자신의 정치적 과업으로 삼고 내셔널리스트의 경향을 보이는 등 아베는 기시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에 관해 아베는 기시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전술했듯이 기시는 올림픽을 유치했지만 올림픽 자체에 대해서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는 올림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아베는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국가로』에서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회고를 남기고 있다. 올림픽 당시 아베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성화 주자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거나 일본 선수들의 활약상에 감동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올림픽에 열광했던 자신을 회상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아베의 유년 시절 모습은 1964년 올림픽에 열광했던 여타 일본인들의 모습과 다름없다. 흥미로운 것은 아베가 같은 저서에서 여타 일본인들과는 다른 올림픽 기억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에게 1964년의 올림픽은 패전의 분함과 전쟁의 후회를 극복하는 대회였다고 평한다. 그러나 1950년대 출신의 전후 세대인 아베 자신은 다른 감정을 느꼈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⁷

ライン』, <https://toyokeizai.net/articles/-/14476>(최종 검색일: 2020. 4. 30.).

26 安倍晋三, 『美しい国へ』(文春新書 903), 文藝春秋, 2006, 76~77쪽.

27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77~78쪽.

1950년대 생인 우리들 세대는 그러한 고통의 기억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철이 들었을 때까지 우리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를 향해 그 존재를 이렇게 과시하고 있다니 신선하게 생각하고 놀라웠다. 어렸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첫 경험이었다.

아베의 회고에서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부흥했다는 감흥은 느껴지지 않는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아베에게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귀속의식, 이른바 내셔널리즘을 경험한 것이다.

아베의 기억은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공적 기억과는 분명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아베의 기억은 스포츠와 올림픽에 대한 그의 지론에도 반영되었다. 같은 저서에서 아베는 1964년 올림픽에서 일본이 금메달 16개를 획득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국제 스포츠의 승패는 국가가 얼마나 힘을 쏟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승리를 목표로 내걸면 국민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구심력이 된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대회는 국가의 위신을 걸고 하는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폭제로 올림픽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베의 생각이었다.²⁸ 즉, 정치인 아베에게 올림픽이란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자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기제인 것이다.²⁹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에게 1964년 도쿄 올림픽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회였다. 아베의 평에 의하면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은 패전에 의해 상처받은 내셔널리즘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나 전후 일본 사회는 애국심을 극도로 경계하였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 이후 일본인들은 4년에 한 번

28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79~80쪽.

29 이 같은 아베의 관점은 내셔널리스트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起夫)가 1964년 도쿄 올림픽에 열광하는 일본을 보면서 남긴 감상들과 유사한 점이 많다. 미시마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해 안전하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서 깨끗한 전쟁의 요소가 있어 모두가 안심하고 전쟁과 일본의 승리를 즐겼다고 평가하였다. 김옥희, 『일본의 문학자들이 기록한 1964년 도쿄 올림픽』, 166쪽.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만 애국심을 표출하게 되었다고 아베는 주장하였다.³⁰ 아베는 1964년 올림픽 이후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분석은 아닐 것이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일본 국민들이 갖게 된 자신감과 자부심이 곧 내셔널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베의 아쉬움은 올림픽으로 형성된 내셔널리즘이 국가적 자립이 아니라 경제 개발에만 소진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림픽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베에게 또 한 번의 도쿄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4.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아베 신조

1) 올·재팬(オール・ジャパン)의 부흥올림픽에서 아베의 부흥올림픽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은 3.11 동일본대진재 부흥이라는 대회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부흥올림픽은 도쿄도가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 2011년 4월경부터 내세운 이념이었다. 도쿄도가 부흥올림픽을 대회 이념으로 제시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2020년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의를 국제사회에 어필하기 위해서였다. 유치 경쟁 도시인 터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이슬람 첫 올림픽’을 내세우고 있었던 반면, 도쿄는 안정적인 재정과 치안을 강조할 뿐 개최 도시로서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도쿄도는 스포츠의 힘을 발휘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부흥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는 스포츠 제전을 만들겠다는 유치 이념을 내세우게 되었다.³¹

둘째, 올림픽 유치에 대한 일본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쿄도가 올림픽 유치에 나선 것은 3.11 동일본대진재가 있고 나서 얼마 지

30 安倍晋三, 『美しい国へ』, 79~80쪽.

31 『朝日新聞』, 2018. 8. 9.

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들이 많았다. 이에 대해 도쿄도는 올림픽을 개최하여 재해 부흥의 기운을 끌어올린다는 대회 이념을 제시하여,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³²

이상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부흥올림픽이란 재해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부흥 계획이라기보다는 도쿄도의 올림픽 유치 전략이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는 “부흥올림픽 같은 것은 네이밍의 문제”라며 먼저 올림픽이 있고 그 이후에 재해가 있었는데 “조금 눈치가 있다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³³ 도쿄도가 2013년 1월 IOC에 제출한 입후보 파일에도 2020년의 올림픽이 재해 피해지역의 부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입후보 파일이 제시하는 대회 비전에는 도쿄를 중심으로 올림픽 무대에 혁신성과 영감을 제시하겠다는 것, 도쿄는 선진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도시라는 것, 새롭게 재생된 도쿄에서 컴팩트한 올림픽을 진행하겠다는 것 등을 언급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³⁴ 오히려 해외 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 현황을 연일 보도하자 도쿄도는 올림픽 개최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일시적으로 부흥 이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부흥 이념이 어디까지나 도쿄도의 유치 전략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부흥올림픽은 실태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었기에 일본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후쿠시마 원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올림픽 유치 및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IOC 총회가 2013년 9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총회를 한 달 앞둔 8월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다량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고, 방사능 오염 지역이 확대되는 등 그 심각성이 연일 밝혀지고 있

32 『朝日新聞』, 2019. 3. 18.

33 『朝日新聞』, 2019. 3. 13.

34 東京都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準備局, 「立候補ファイル第1巻」, https://www.2020games.metro.tokyo.lg.jp/candidate-entire-1-JP_1.pdf(최종 검색일: 2020. 4. 30.).

었다.³⁵ 둘째, 부흥올림픽이 피해지역의 경제·사회적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2013년 8월 9일자 『아사히신문』은 도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피해지역의 경제적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올림픽에 의해 피해지역의 실상이 잊혀질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상당하다고 보도하였다.³⁶ 이렇게 도쿄도는 부흥올림픽 이념을 둘러싼 논란 속에 올림픽 유치에 나서고 있었다.

이상이 아베가 올림픽에 관여하기 시작한 시기의 분위기이다. 즉, 부흥올림픽 이념과 관련 논란은 아베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13년 1월 8일 아베는 올림픽 개최 위원회 최고 고문직을 맡으면서 올림픽 유치전에 가담하게 되었다. 시기를 보면 이때는 자민당이 여당으로 복귀하여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한 지 약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아베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초대를 받은 존재였다. 도쿄도와 올림픽 개최위원회는 정계와 경제계를 포함하는 ‘올·재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2020년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가적 열의를 보이고 준비 체계를 확고히 한다는 생각으로 아베에게 접근한 것이었다.³⁷

이렇게 아베는 도쿄도의 권유를 받아 올림픽 개최 유치에 나선 것이었다. 물론 아베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섰다. 저널리스트 다사키 시로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아베 정권의 열의는 4년 전의 민주당 정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베가 부흥올림픽의 이념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조했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 유치에 나서는 배경으로 올림픽을 유치하면

35 2013년 8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特集イチエラ未収束の危機: 汚染水・高線量との苦闘」, 『世界』 第848号, 2013, 81~169쪽.

36 『朝日新聞』, 2013. 8. 19.

37 도쿄도는 일본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을 2016년 올림픽 개최 유치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2016년 올림픽 개최권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손에 들어갔는데, 당시 일본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정권은 정국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도쿄도는 일본 정부를 포함한 거국적 체제로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나선 것이었다. 池井優, 「オリンピックと日本外交: 三つの“東京オリンピック”を中心に」, 『法学研究』 第89卷 4号, 2016, 26~28쪽.

2020년 이후 약 2년간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들었다.³⁸ 스가의 말은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베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나선 이유 중에 하나로 기시에 대한 기억을 들 수 있다. 아베는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최고 고문직을 제안하자, “기시 전 총리도 1964년 대회 유치의 최고 고문을 맡아 개최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도 성공하고 싶다”며 흔쾌히 수락하였다.³⁹ 이처럼 아베는 기시가 1964년 도쿄 올림픽 유치 당시 유치 최고 고문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다. 3.11이 2년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일본의 총리로서 아베는 피해지역의 부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아베의 당시 발언들을 보면 그는 올림픽을 경제 성장과 기시의 관점에서 이해할 뿐 2020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의 의미를 3.11 부흥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발상은 보이지 않는다.

9월 8일의 IOC 총회 연설에서 아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황은 통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도쿄에는 어떠한 악영향도 지금까지 미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주목을 받았다.⁴⁰ 아베의 적극적인 해명은 도쿄의 올림픽 유치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정상 차원의 적극적인 해명은 아베의 원래 입장이 아니었다. 해외 언론이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보도하면서 IOC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었고, 올림픽 개최위원회가 논란 수습을 위해 아베에게 오염수 문제를 적극 언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급히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⁴¹ 이처럼 올림픽 유치 과정 속 아베의 활동은 상황적이고 반응적이었다. 2020년 올림픽 유치 획득에 성공한 후 이노세 나오키(猪瀬直樹) 도지사는 “올·재팬으로 릴레이

38 田崎史朗, 『安倍官邸の正体』(講談社現代新書), 講談社, 2014, 194~196쪽.

39 『日本経済新聞』, 2013. 1. 8.

40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IOC総会における安倍総理プレゼンテーション」,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013/0907ioc_presentation.html(최종 검색일: 2020. 4. 30.).

41 田崎史朗, 『安倍官邸の正体』, 200쪽.

바톤 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말했다.⁴² 이처럼 아베는 이노세가 말한 올·재팬의 일원이었을 뿐이었다.

2014년에 들어 아베는 부흥올림픽에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4년 1월 24일 아베는 소신표명연설에서 올림픽으로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2020년에 새로운 동북 지방의 모습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역설하였다.⁴³ 그리고 같은 해 9월의 소신표명연설에서는 2020년의 올림픽을 반드시 ‘부흥올림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⁴⁴ 아베의 연설은 부흥올림픽이 도쿄도의 유치 전략을 넘어 일본 정부 차원의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아베가 부흥올림픽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보면 올림픽으로 3.11 동일본대진재의 부흥에 기여한다는 대회 이념은 일본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16년 8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는 취임 이후 “부흥올림픽이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말했다.⁴⁵ 이렇게 보면 아베 또한 부흥올림픽의 취지에 매력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베가 부흥올림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와 비슷하게 올·재팬 체제로 운영되던 도쿄 올림픽의 운영주체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2014년에 1월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으로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가 취임하였는데, 그 경위를 살펴보면 도쿄도 및 일본 올림픽 위원회, 총리 관저 간의 알력이 있었다. 도쿄도와 일본 올림픽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계 인사를 회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저 측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행정

42 『朝日新聞』, 2013. 9. 10.

43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第186回国会における安部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40124siseihousin.html (최종 검색일: 2020. 4. 30.).

44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第187回国会における安部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https://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40929shoshin.html (최종 검색일: 2020. 4. 30.).

45 『朝日新聞』, 2016. 10. 19.

경험을 가졌다는 이유로 모리 전 총리를 지지하였다. 인사를 두고 도쿄도와 관저 간의 의견 대립이 벌어진 가운데 재계 측 인사들이 회장직 제안을 고사하면서 결국 회장 자리는 모리에게 돌아갔다.⁴⁶

올림픽의 주최는 개최 도시와 개최국의 올림픽 위원회이며 이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조직하에 올림픽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치인 출신이자 관저가 선호하는 모리가 조직위원회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올림픽 준비에서 관저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모리는 아베 가문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인물로 그의 회장 취임은 올림픽과 일본 정치의 관계를 밀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⁴⁷

이후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올·재팬에서 아베의 올림픽이 되어 간다. 아베는 모리를 통해 부흥올림픽의 주역이 되었다. 후쿠시마현을 성화 출발지로 선정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8년 7월 12일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현을 성화 릴레이의 출발 장소로 발표했는데, 여기서 아베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화 릴레이를 부흥올림픽의 상징이 되는 행사로 3.11 피해지역을 성화 릴레이 코스에 넣는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도 성화의 출발지를 피해지역으로 할 것인지 오키나와로 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래 조직위원회는 후자인 오키나와 쪽을 선호하였다. 일본 전국을 돌기 편하고 피해지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릴레이가 시작되는 3월에는 추위 대책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직위의 모리가 아베와 회담을 한 이후 상황은 반전되었다. 아베는 모리와의 회담에서 부흥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피해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베의 의향을 확인한 조직위원회는 입장을 변경하였고, 결국 성화 릴레이는 후쿠시

46 『朝日新聞』, 2013. 11. 15.

47 모리는 아베의 조부 기사의 지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후 자민당 의원시절 모리는 아베의 부친인 신타로의 파벌에 속해 있었고, 아베는 모리파의 일원에서 총리로 성장하는 등 아베와 모리는 정치적으로도 인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마현을 출발지로 하게 되었다.⁴⁸

이렇게 아베는 올·재팬의 일원으로 시작하여 차츰 부흥올림픽을 매개로 도쿄 올림픽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게 되었다. 다만 이것이 아베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아베가 부흥올림픽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올림픽을 통해 실제로 피해지역의 부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까지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3.11 피해지역의 부흥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가운데 올림픽 기간까지 부흥에 진전이 없다면 아베의 부흥올림픽 개입은 거대한 정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2)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아베의 헌법 개헌 올림픽

2017년 5월은 아베에 의한 도쿄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드는 시기다. 그것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이 개헌을 둘러싼 일본 정국과 연계되는 것이었다. 2017년 5월 3일 아베는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 단체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⁴⁹

나는 예전부터 반세기 만에 하계 올림픽,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미래를 주시하며 일본이 새롭게 태어나는 커다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일찍이 1964년의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일본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때 얻은 자신감이 그 이후 선진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20년 또한 일본인 공통의 커다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일본이 반듯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해인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한 것은 위의 연설이 처음이었다. 아베가 개헌 시기로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제시하면서 아베가 올림픽

48 『朝日新聞』, 2018. 7. 13.

49 『日本經濟新聞』, 2017. 5. 3.

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도쿄신문』은 개헌은 올림픽과 아무 관계 없고, 피해지의 고통을 부흥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감추려 한다며 아베를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당시의 히틀러에 비유하였다.⁵⁰ 또한 『마이니치신문』은 올림픽을 지렛대로 개헌에 나서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며, 아베에게 올림픽은 스포츠 제전으로 독립된 존재여야 한다는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였다.⁵¹

부흥올림픽과는 다르게 2020년의 도쿄 올림픽을 개헌과 연관 짓는 것은 아베가 유일하다. 아베의 생각에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자신의 기억이 짙게 반영되어 있었다. 아베는 2020년을 개헌의 해로 삼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⁵²

일찍이 일본은 1964년의 올림픽을 목표로 신칸센, 수도고속,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등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당시 10살이었는데 세계의 강호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활약하는 일본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하면 된다”는 커다란 자신감을 가졌다. 올림픽은 선진국으로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0년도 지금 일본인에게 공통의 목표가 되는 해이다. (중략) 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삼고 싶다.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는 이 해에 새로운 헌법의 시행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다.

아베의 기억에는 일본이 1964년 올림픽 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자부심만 가득하다. 이처럼 아베는 2020년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일본 사회에 대두할 내셔널리즘을 개헌이라는 국가 자립의 이슈로 유도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2020년을 구체적인 개헌 시기로 제시한 아베는 개헌안 준비를 위한 당내 조정에 들어갔다.⁵³

50 『東京新聞』, 2017. 5. 26.

51 『毎日新聞』, 2017. 5. 11.

52 『読売新聞』, 2017. 5. 3.

53 2017년 5월 3일의 연설에서 아베는 헌법 9조 1항의 전쟁 포기, 2항의 전력 불보유 및 교전권 불인정

아베가 2017년 5월에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배경으로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을 지적할 수 있다. 아베의 발언이 있기 약 두 달 전인 3월 5일 자민당은 제84회 당 대회에서 총재 임기를 기존의 2기 6년에서 연속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만약 2018년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가 승리한다면 2021년 9월까지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를 염두한 정국 구상이 가능해지는 것이었다. 2018년 9월 아베는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를 누르고 3선 연임을 달성하였고, 2020년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할 당내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나아가 아베는 중의원 선거에 승리하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장악에 한걸음 나아갔다. 2017년 10월 제48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284석을 획득, 공명당과 함께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 3분의 2를 넘는 313석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뒀다. 제48회 중의원 임기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까지로 임기 내에 2020년 도쿄 올림픽이 포함되었다. 총재 3선 연임, 중의원 선거 승리 등의 과정을 통해 2020년 도쿄 올림픽은 아베의 남은 임기, 중의원 해산과 같은 일본 정국과 밀접하게 연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였다.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조차 아베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개헌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나아가 각료 사퇴, '사쿠라를 보는 모임'(桜を見る会) 등 아베 본인의 책임 소재와 직결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개헌 작업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을 그대로 두고 자위대의 존재를 추가한다는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아베의 개헌안은 9조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명기한다는 자민당의 기존안과는 다른 내용이었기에 당내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아베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자민당의 기존 개헌안은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아베는 자신의 개정안이 공명당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노선이라고 주장했고,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아베의 안을 채택할지, 자민당의 기존의 안을 유지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김성조·윤석정, 「일본 헌법 9조 개정의 정치: 아베 총리의 개헌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27권 2호, 2019, 140~145쪽.

2019년 말까지 이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의 임기 내 개헌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⁵⁴

2020년을 맞이하여 아베는 자신의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1월 20일 아베는 소신포명연설에서 “인류는 4년마다 꿈을 꾀다”는 1964년 도쿄 올림픽 기록영화의 대사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⁵⁵

새로운 시대를 어떠한 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한 꿈의 실현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행동에 걸려 있습니다. 사회 보장을 포함해 국가의 형태에 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레이와(令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고 올림픽을 앞두고 미래를 향한 약동감이 넘치는 지금이야말로 추진할 시기입니다. 미루기만 해서는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형태를 말하는 것은 헌법입니다. 미래를 향해 어떠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 안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 국회의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 심사회의장에서 다 같이 그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는 4년마다 꿈을 꾀다는 발언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4년에 한 번씩 내셔널리즘이 고양된다는 아베의 생각이 연상된다. 아베는 올림픽으로 새로운 일본을 맞이하는 2020년을 개헌의 발판이 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어서 아베는 도쿄 올림픽 유치 이후 자신의 발자취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을 마무리하였다.

세계의 한가운데서 빛나는 일본, 희망이 넘치고 자랑스러운 일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꿈을 향해 7년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꿈을 꿈으로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일본을 만들기 위해 오늘 지금부터 여러

54 『朝日新聞』, 2019. 12. 11.

55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第201回国会における安部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20/0120shiseihoushin.html(최종 검색일: 2020. 4. 30.).

분과 함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아베는 올림픽을 연발하면서 남은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감안하면 개헌은 건곤일척의 승부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평했다. 이어서 아베는 개헌이라는 커다란 꿈을 향해 7년간 전력을 다해 왔고, 그의 연설대로 꿈을 꿈인 채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⁵⁶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새해부터 아베가 개헌 의지를 강조하면서 2020년 올림픽은 개헌 관련 일본 정국 전망에 밀접하게 연루되었다.⁵⁷ 그 전망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2020년 가을 중의원 해산설이다. 아베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중의원 해산은 자신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하며 헌법 개정을 위해 해산이 필요할 때 감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피력하였다.⁵⁸ 2020년 일본 정국에서 중의원 해산 타이밍으로 가장 유력시되는 것이 올림픽 개최 이후 가을이다. 올림픽 이전에는 1월에 통상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있고 봄에는 시진핑 방일이라는 굵직한 외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을 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 반면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가을에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고, 이를 기세 삼아 ‘올림픽 이후의 국가 구상’을

56 『産経新聞』, 2020. 1. 20.

57 일각에서는 아베의 개헌 발언이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의 결속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2019년 말까지 개헌 작업이 지체되면서 아베의 임기 내 개헌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분석이지만 아베가 자민당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아베가 지속적으로 개헌을 의제로 삼으면서 이에 호응하여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여는 때와 달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포스트 아베 주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雅)가 개헌을 주제로 하는 지방 정조회를 실시하였고, 자민당 간사장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가 헌법집회를 개최하는 등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당여성국과 당 청년국이 헌법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 당 중앙 정치대학원에서 헌법 관련 강좌를 주최하는 등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자민당의 하부조직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자민당의 움직임을 보면 아베의 개헌 의지는 분명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야당의 협상 거부, 정치 스캔들 문제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의해 지체되고 있다고 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阿比留瑠比, 『憲法改正動き始めた安倍自民党』, 『正論』 令和 2年 2月号, 2019, 140~142쪽.

58 阿比留瑠比, 『憲法改正動き始めた安倍自民党』, 141~142쪽.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에서 승리한다면 개헌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정비될 것이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현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아베가 이를 이용하여 중의원 다수를 확보하고 개헌을 위한 동력을 얻는다는 전망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아베의 자민당 총재 4선 연임이다. 아소 다로는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2년도 안 남은 총재 임기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것은 정치 일정상 아주 어려운 일”이라며, “아베 총리가 진정 헌법 개정을 원한다면 한 번 더 1기, 즉 총재 4선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⁵⁹ 이렇게 아베의 임기 내에 개헌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자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의 총재 임기를 1회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베 본인은 4선 연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베의 총재 4선 연임설은 중의원 가을 해산설과 밀접히 연관되며 꾸준히 거론되었다. 올림픽 이후 가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여기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둔다면 자민당 내 여론은 아베의 총재 4선 연임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⁶⁰ 만약 아베가 총재 4선 연임을 한다면 아베에게 개헌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회장인 모리가 2020년 일본 정치의 동향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밝혀 주목을 요한다. 모리는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아베의 총리직 지속을 주장하였다. 트럼프의 미국 제일주의, 북핵문제 등 국제 정세가 험난한 가운데 많은 외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베가 총리를 그만둔다면 일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었다.⁶¹ 이처럼 모리는 국제 정세를 이유로 아베의 총재 4선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의 총재 4선 연임설이 개헌과 연관해서 논의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모리의 주장이 국제 관계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59 麻生太郎, 「安倍総理よ, 改憲へ4選の覚悟を」, 『文藝春秋』2020년 1月号, 2020, 124~125쪽.

60 藤野清光, 「衆院解散含み, 首相の決断焦点: 2020年の政治展望」, 『nippon.com』, <https://www.nippon.com/ja/in-depth/d00533>(최종 검색일: 2020. 4. 30.).

61 森喜郎, 「『五輪と政局』に吠える」, 『文藝春秋』2020년 3月号, 2020, 116쪽.

이어서 모리는 아베에게 향후의 정국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⁶²

총재 임기 만료까지 남은 1년 7개월이라는 정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한다면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끝낸 이후 마음먹고 국민 여론을 묻는 방법도 있다. 해산을 한 이후 아베 총리다운, 아베 총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인사를 한다면 좋을 것이다. 선거 결과에는 국민의 지지가 아베 총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아베 총리가 거리낌 없이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권과 당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리의 발언은 아베의 2020년 정치 일정에 올림픽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모리는 아베의 2020년 정국 운영 구상 속에 도쿄 올림픽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모리의 발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아베의 올림픽이 되는 것에 대한 지지의사와 같은 것으로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올림픽의 성공과 아베의 정치적 성공을 같이 고려하는 모리의 생각은 이후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올림픽의 연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3)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연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움직임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면 전환을 맞는다. 2020년 1월부터 중국을 휩쓴 코로나19는 2, 3월에 들어와 미국, 서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 빠졌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는 3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국제사회는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팬데믹 선언 이후 감염을 우려한 참가국 및 선수들의 올림픽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닥쳤다.

62 森喜郎, 「「五輪と政局」に吠える」, 123쪽.

팬데믹 선언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올림픽의 정상 개최였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인식은 올림픽의 정상 개최에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고 있었다. 3월 14일, 15일에 걸쳐 진행된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63%가 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⁶³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高橋治之) 이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올림픽을 1~2년 연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⁴ 조직위원회는 다카하시의 발언이 공식 견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사회가 도쿄 올림픽을 제때에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림픽의 정상 개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본 사회에서는 올림픽 중지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3월 18일 아소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2020년의 도쿄 올림픽은 1940년의 도쿄 올림픽,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등 40년마다 반복되는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발언하였다.⁶⁵ 1940년에 일본은 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했지만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군의 잔혹 행위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 개최권을 반납한 역사가 있다. 팬데믹 때문에 2020년 올림픽이 중지된다면 일본은 하계 올림픽을 2번 반납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을 것이었다.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올림픽을 둘러싼 기억의 추는 1964년의 빛나는 시대에서 1940년의 ‘환상의 올림픽’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아소의 발언은 신중함이 결여된 것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 중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아닌 IOC가 올림픽 개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IOC가 도쿄도 및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맺은 계약에 따르면, “참가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IOC가 단독 재량으로 중지할 권한이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계약에는 연기에 관한 조항이 없이 2020년 중

63 같은 조사에서 연기 외에 ‘예정대로 개최’는 23%, ‘중지’는 9%가 나왔다. 『朝日新聞』, 2020. 3. 17.

64 『朝日新聞』, 2020. 3. 11.

65 『朝日新聞』, 2020. 3. 19.

에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IOC가 중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만이 존재하였다.⁶⁶ 게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부터 IOC 내부에서는 올림픽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다.⁶⁷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IOC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올림픽의 개최 중지를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⁶⁸

팬데믹 상황으로 올림픽 정상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2020년 일본 정국 또한 불확실해졌다. 올림픽 이후 가을 해산이 유력했지만 자민당 간부는 “올림픽 개최도 열릴까 말까 한데 해산 전략은 도저히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⁶⁹ 만약 올림픽이 연기 또는 중지될 경우 올림픽 개최로 인한 정권 지지율 상승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의원 해산 시기를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중의원 대승을 전제로 하는 아베의 총재 4선 연임 주장도 기세를 잃을 것이었다.

올림픽과 연관된 일본 정국 시나리오가 백지화된 가운데 아베의 올림픽은 국제 관계에서 전개되었다. 3월 1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하는 것보다는 연기가 나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올림픽 1년 연기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날 3월 13일 아베는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⁷⁰ 아베와 트럼프 간의 의사소통 부재가 눈에 띄지만 이 같은 일련

66 『日本經濟新聞』, 2020. 3. 12.

67 예를 들어 IOC의 최고참 위원인 톰 바우드는 2월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인기 스포츠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올림픽을 몇 개월 미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면 “중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朝日新聞』, 2020. 2. 26.

68 IOC가 독단적으로 올림픽 중지를 결정할지 모른다는 일본의 우려에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축적된 IOC에 대한 깊은 불신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무더위로 인한 선수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의 마라톤 코스를 삿포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IOC는 도쿄도와 조직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강압적으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일본에서는 IOC가 GHQ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編集部, 「マラソン札幌変更「NOと言えない日本」の悲しさ」, 『President Online』, 2019. 10. 31., <https://president.jp/articles/-/30520> (최종 검색일: 2020. 4. 30.).

69 『朝日新聞』, 2020. 3. 18.

70 『毎日新聞』, 2020. 3. 13.

의 과정은 아베가 팬데믹의 국제 정세에서 올림픽 관련 정상 외교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아베는 올림픽 관련 정상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3월 16일 아베는 G7과의 영상회의 이후 기자단에게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승리한 증거로서 도쿄 올림픽을 완전한 형태로 실현한다는 것에 G7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아베의 발언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면 올림픽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한 발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⁷¹

아베가 국제사회에서 올림픽 개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이유는 IOC의 독단적인 중지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3월 12일경부터 올림픽 연기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IOC에 의한 일방적인 올림픽 중지를 우려한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그의 본심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스폰서와 중계권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통해 IOC를 견제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다.⁷²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G7에서 아베가 한 발언도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베는 G7의 정상들로부터 올림픽 연기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IOC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다.

올림픽 중지를 저지하기 위한 아베의 올림픽은 올림픽 준비 일정과 밀접히 연계되었다. 여기서 아베가 중요시한 것이 성화 봉송 일정이었다. 3월 중순 아베와 고이케는 후쿠시마현에서 성화 릴레이가 시작하는 3월 26일 이전에 올림픽 연기를 결정짓는다고 합의했다.⁷³ 예정대로라면 3월 20일에 그리스에서 일본으로 성화가 들어올 것인데, 아베는 일단 성화를 일본이

71 『朝日新聞』, 2020. 3. 18.

72 岩田明子·馬場直子, 「東京五輪・パラ1年延期の裏腹」, 『NHK政治マガジン』,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feature/32725.html> (최종 검색일: 2020. 4. 30.).

73 『朝日新聞』, 2020. 3. 26.

확보하면 올림픽의 일본 개최가 더욱 확고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⁷⁴ 즉, 아베에게 3월 20일에서 26일은 올림픽 연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시기였던 것이다.⁷⁵

이렇게 국제 정치와 올림픽 무대에서 주변 조건을 정비한 아베는 IOC와의 직접 담판에 나섰다. 3월 24일 아베는 IOC 토마스 바흐(Thomas Bach) 회장과 전화 협의를 하여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협의 후 아베는 기자단에게 선수들과 관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올림픽의 1년 연기를 제안했고 바흐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⁷⁶

아베·바흐의 협이가 있기 이틀 전인 22일 모리와 바흐 간의 전화 협의에서 올림픽 중지는 없다는 원칙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⁷⁷ 즉, 1년 연기라는 구체적인 연기 시기는 아베와 바흐와의 협의에서 정해진 것이다. 아베가 바흐에게 1년 연기를 주장하자, 바흐는 2021년 연기 또는 2021년 여름 연기를 위한 사무 차원의 협의를 제안했다. 아베는 바흐의 제안대로면 개최 시기가 불명확하고 합의 내용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늦어도 21년 여름까지 개최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⁷⁸

두말할 것 없이 아베의 1년 연기 제안은 자신의 총리 임기를 고려한 것이었다. 여기서 도쿄 올림픽의 정치적 이용을 주도하는 아베-모리 라인이 움직였다. 모리에 의하면, 아베·바흐 협의 전에 아베를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⁷⁹

회의 30분 전에 와 달라고 아베 총리가 말했다. 그가 1년 연기라고 말했을 때

74 『読売新聞』, 2020. 3. 26.

75 또한 3월 20일과 26일 사이에는 도쿄 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는 IOC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IOC 총회는 4주간에 걸쳐 올림픽이 정상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었다. 팬데믹 상황 속에 올림픽 중지론이 대세가 되는 상황을 초기에 진압한다는 관점에서라도 아베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76 『朝日新聞』, 2020. 3. 25. 이후 IOC, 도쿄도, 조직위 간의 협의 끝에 2020 도쿄 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정으로 연기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77 岩田明子·馬場直子, 「東京五輪・パラ1年延期の裏腹」, 『NHK政治マガジン』.

78 『朝日新聞』, 2020. 3. 26.

79 『朝日新聞』, 2020. 4. 3.

“2년으로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묻자 “백신 개발 가능하다. 일본의 기술력은 저하되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말했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임기만료를 감안하여] “정치일정도 있군요.” 하고 말하자 아베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답변했다. 아베 총리는 상당히 명쾌하게 “이걸로 좋다. 1년으로 괜찮다.”라고 말했다. 나는 [아베 총리가] 모든 것을 21년에 걸었음을 느꼈다.

아베는 반드시 자신의 임기 내에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생각에 올림픽 1년 연기를 바흐에게 제안한 것이었다.⁸⁰

올림픽의 중지만은 막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2021년에도 올림픽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베 본인 또한 내년 여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3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⁸¹

먼저 올림픽을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개최한다는 것으로 바흐 회장과 합의했습니다. 대략 1년간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판단, 결단에 대해서는 이전 G20에서도 공동성명에서 이 결단을 높이 평가하는 강력한 지지표명이 있었습니다. 한편 그렇다면 언제 코로나와의 싸움이 끝날 것인가? 종식하는 것인가? 지금 현시점에 답할 수 있는 세계 정상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유감입니다만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80 올림픽 연기 일정을 제안할 때 정치일정을 고려해야 하는냐는 모리의 질문에 아베는 쓴웃음을 지었다고 한다(『朝日新聞』 2020. 4. 1.). 한편 IOC의 바흐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베의 1년 연기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있다. 바흐의 임기 또한 아베와 비슷하게 2021년 9월에 IOC 회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는 도쿄 올림픽을 자신의 임기 내인 늦어도 2021년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지만 올림픽의 1년 연기가 보건의 안전상의 결정이 아니라 아베와 바흐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낳은 합의라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後藤逸郎, 「五輪延期費用3千億円IOCも負担せよ」, 『文藝春秋』, 2020년 5月号, 248쪽.

81 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安部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20/0327kaiken.html(최종 검색일: 2020. 4. 30.).

모리의 평대로 아베는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지만 2021년 자신의 임기 내에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도박에 나선 것이다. 아베의 도박이 성공할지 아직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아베는 도쿄 올림픽에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5. 결론

본고는 아베의 올림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아베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을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올림픽 연기라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는 올·재팬 체제로 올림픽 유치전에 나서려는 도쿄도의 권유를 받고 올림픽 유치전에 나섰지만 부흥올림픽을 시작으로 점차 올림픽 준비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아베는 올·재팬의 일원에 불과했지만 점차 부흥올림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자신의 부흥올림픽을 만들어 갔다. 이와 함께 아베와 가까운 모리가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자리에 앉으면서 아베-모리 라인이라는 아베의 올림픽을 주관하는 인적 관계가 마련되었다.

둘째, 2017년 5월부터 아베의 올림픽은 개헌 정국에 연루되기 시작하였다. 아베는 1964년의 도쿄 올림픽에서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체험하였고, 올림픽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아베는 2020년의 올림픽 개최로 고양될 내셔널리즘을 동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베가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개헌의 해로 삼으면서 가을 해산설, 자민당 총재 4선 연임설 등 올림픽과 2020년의 일본 정국이 긴밀하게 연계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팬데믹의 국제 정세에서 아베는 올림픽 중지를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아베는 IOC에 의한 독단적인 올림픽 중지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미일정상회담,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올림픽 관련 정상 외교를 펼쳤

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내에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팬데믹 종식이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1년 연기를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부흥올림픽, 헌법 개정, 올림픽 연기 사례와 아베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하겠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부흥올림픽은 많은 일본인들에게 매력적인 대회 이념이었다. 본고에서 논했듯이 아베에게 부흥올림픽은 올림픽에 개입하는 매개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총리로써 올림픽이 3.11 동일본대진재의 부흥에 기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응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베가 없었어도 2020년 올림픽의 대회 이념으로 부흥올림픽이 거론되었을 것이고, 그 이념이 적절한지 논란이 계속되면서 올림픽 준비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사례들은 부흥올림픽과 같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베가 아니었다면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개헌 가능성이 논의되거나, 올림픽이 개헌을 위한 전 단계로 간주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팬데믹으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더라도 중계권 계약, 행정상의 편의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연기 비용이 발생하고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지만 올림픽을 개최하여 재해 부흥을 달성하겠다는 일본 올림픽 관계자들의 열망이 올림픽 연기 과정에 영향을 발휘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베가 개입하면서 아베의 임기 내 업적을 위해 올림픽을 1년 연기했다는 뒷말만이 무성한 상황이다.

2020년 3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인류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증표로서 내년 2021년에 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제 아베는 자신의 올림픽을 코로나19를 수습하여 2021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아베의 새로운 올림픽이 성공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 도쿄 올림픽의 남은 여정 또한 아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투고일자: 2020. 5. 18. | 심사완료일자: 2020. 5. 31. | 게재확정일자: 2020. 6. 16.